

호남대,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최고 경쟁률

평균 경쟁률 7대 1 기록...물리치료학과 16.6대 1 '최고'

호남대학교 전경.



호남대학교가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광주·전남지역 4년제 주요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에 따르면 호남대는 14일 마감된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573명 모집에 1만985명이 지원해 평균 7대 1의 경쟁률로 지역 대학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6.3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 호남대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과 2018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사업, 2018 자율개선대학에 모두 선정되면서 지역 최고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물리치료학과가 41명 모집에 680명이 지원해

16.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치위생학과가 43명 모집에 486명이 지원해 11.3대 1, 응급구조학과가 43명 모집에 485명이 지원해 11.3대 1, 항공서비스학과는 37명 모집에 362명이 지원해 9.8대 1을 나타냈다.

또 간호학과는 111명 모집에 1053명이 지원해 9.5대 1, 소방행정학과는 32명 모집에 310명이 지원해 9.7대 1, 사회복지학과는 43명 모집에 408명이 지원해 9.5대 1를 기록했다.

호남대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 후 10월5일 일반학생전형과 기초차상위 한부모전형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18일 면접을 거쳐 10월31일 면접전형과 수능최저 미적용 학과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과는 12월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국립대인 전남대는 수시모집 결과 모집인원 3141명에 2만87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대학교는 1665명 모집에 9577명이 지원해 5.75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경찰법행정학부가 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여자대학교는 918명 모집에 5205명이 지원해 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치위생학과가 11.5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학과 10.30대 1로 뒤를 이었다. 항공서비스학과는 8.84대 1을 기록했다.

동신대학교는 1558명 모집에 844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42대 1을 나타냈다.

전형별 경쟁률은 일반전형 학생부 교과가 6.26대 1, 학생부 종합이 4.17대 1, 지역인재전형은 4.74대 1이다.

조선대는 3687명 모집에 1만5969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원대학교도 이날 2019학년도 수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정원 내 기준 716명 모집에 3422명이 지원해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인호 기자

“농산어촌 작은 학교서 전남교육 미래를 찾다”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포럼 열던 분위기 속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15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18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포럼을 개최했다.

“농산어촌 교육, 협력과 다양화로 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이날 포럼은 읍 이하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76%를 차지하는 전남의 현실에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병환 순천대 교수는 농산어촌 교육 발전방안으로 기존 학교체제의 재구조화 방안, 마을학교 운영, 교직원들의 쾌적한 거주 여건 조성, 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전문성 확보, 농산어촌 지역의 유희시설 활용, 폐교시설 활용 등을 제시했다.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종합적인 농산어촌 작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서국장은 이를 위해 △교직원 배치 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공공 교육과정 △작은학교 간 네트워크 및 지원망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10년 이후 미래교육에 따른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호 작은학교교육연대 정책위원회는 제도 개혁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역할 재정립 △자율학교 확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과 교감·교사팀 공모제 실시 △작은 학교 정책과에서 정책 실현하기 △작은 학교와 미래형 학교와의 만남을 강조했다.

최관현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과학교사는 농산어촌학교의 활성화와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학교 유형 사례를 제시했다.

박효숙 장흥유치중학교 교사는 초·중 통합학교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초·중 통합학교 교직원 연

수, 업무 통합 시스템, 학교급별 교감 배치,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복수자격 교사 배치, 초·중 통합학교 학교 간 네트워크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떠나는’ 농산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며 “교육가족은 물론 지자체와 도민들의 협력으로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양교육지원청-광양시, 학생위해 머리 맞대다

201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업무 협의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제)과 광양시는 14일 광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교

개개인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이루어 가는 광양교육 실현을 지향점으로 201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2019학년도 초등학교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확대 예정에 따른 통학차량지원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추후 광양시 발전협의회를 통해 통학차량의 노선 및 배차횟수 증가 등에 대해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전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원제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육하기 가장 좋은 교육도시인 광양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상생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며 기존 사업뿐 아니라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따른 통학차량지원비 등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쌍쌍 버스로 신나는 2학기 시작”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통학버스 교체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2학기 시작과 맞추어 무안관내 초등학교 통학차량 4대를 9월 14일 교체 지원하였다.

통학차량 운행연한이 도래된 일로초 일로동초 정계남초 운남초의 차량을 이용학생수와 운행거리 등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4인승 승합버스를 조달구입 하였으며, 8월 여름방학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과 승인 절차를 마쳤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필수사항에 맞는 구조변경을 마친 신차량은 안전 운행을 위한 통학 구간 시범 운영을 거쳐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정계남초 운전원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새로 구입된 34인승 통학차량으로 더욱 쾌적한 등하교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고 차량관리 및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더욱 노력하며,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주 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